

【부속문서 3】



캄보디아의 전통 줄다리기, Teanh Prot

봉 소바트 |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 총장
빈 레이처 |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문화국 사무관
치 로타 |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 교무처장
튀 리다 |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주무관
탄 소반 우돔 |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주무관
시온 소피리트 |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교 강사

1. 맥락과 배경

줄다리기는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보편적인 놀이이다. 줄다리기를 양팀 간의 순수한 힘 겨루기로 보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의식으로 진행되는 나라들도 있다.

줄다리기는 크메르어로 테안 프룻(teanh prot)이라고 하며, 4월 중순 캄보디아의 전통 설 명절과 출롱 췌(chlong chet)이라고 부르는 시농(始農) 축제 기간에 진행된다. 이들 축제 기간에는 견과류 던지기(그림 1, 2), 보자기 던지기, 손수건 숨기기 등 여러 전통놀이가 벌어지지만,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놀이는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인들 중 줄다리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 걸쳐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이 놀이는 수세기 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캄보디아의 농경문화와 뿌리 깊은 연관이 있다.

줄다리기는 가장 대중적이면서 보편적인 민속놀이이지만 오늘날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모던 댄스(그림 3) 등 현대적인 놀이 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탓도 있지만, 줄다리기의 멸실 위기는 다음의 세 가지 상황에 기인한다.

-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이농 현상
- 마을 원로들의 의지 부족
-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러나 현대화와 도시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캄보디아의 북부 지역에서는 줄다리기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벼농사와의 연관성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연구원들은 전통적인 연행 공간인 대다수의 사원들이 줄다리기를 더 이상 연행하지 않는 것을 목격했다. 뿐만 아니라, 줄다리기 보존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마을이 있었지만 전승 활동에는 대부분 무관심했다.

‘전통 줄다리기와 관련된 문화 교류, 정보 교환, 회원국 간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아시아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보 축적’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유네스코아태 무형유산센터(ICHCAP)는 캄보디아의 전통 줄다리기 전승 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캄보디아 문화예술부(MoCFA)에 협력을 요청했다. MoCFA는 캄보디아의 전통 줄다리기와 관련된 자료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연구팀 구성에 동의했다. 연구 목적은 줄다리기 전승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현지조사 연구팀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봉 소바트 (연구팀장)
- 빈 레이처 (현장 연구원)
- 치 로타 (현장 연구원)
- 투이 리다 (현장 연구원)
- 탄 소반 우돔 (현장 연구원)
- 시온 소피리트 (현장 연구원 겸 데이터 분석가)

캄보디아 문화예술부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승인을 받은 현지조사팀은 캄퐁참, 프레이벵, 스바이리엥, 캄퐁툼, 시엠립, 반테이 메안체이라는 6개 지역에서 현지 조사를 수행했다. 전국적으로 널리 연행되는 줄다리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연구팀은 또한 2013년 설 명절 축제 기간 동안 시엠립 지역의 세 마을에서 연행된 줄다리기를 관찰했다. 뿐만 아니라 한 연구원은 음력 5월 보름에 열리는 즐롱 췌 축제 기간 동안 줄다리기를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행운도 얻었다. 이 축제는 4월 25일 반테이 스투이 군에 위치한 반테이 스테이 사원에서 개최된 축제였다.